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

祝 辭

2019. 12. 4.(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부산의 중심
문현금융단지에 건립된
부산증권박물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행사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오거돈 부산시장님,
김정훈 의원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의 의미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금융중심지입니다.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을 축하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① 첫째, 증권박물관은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금융거래는
17세기초 주식회사 제도 출현으로 본격화됩니다.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가
설립되면서 주식회사 제도가 확립되고,
암스테르담을 비롯해 유럽 각지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럽의 자본시장은
혼돈 속에서 제도를 갖추어나가게 됩니다.

일례로, 1720년 영국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버블은
회계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됩니다.

부산증권박물관에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거래 증서,
영국 남해회사 주식을 실물로 확인하고
당시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도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미두(米豆)거래* 관련 유물,
해방 이후 토지개혁 과정에서 발행된 지가증권(地價證券)**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쌀과 콩의 가격을 기초로 현물 없이 거래하는 시장으로 현대 파생상품시장의 원형

** 토지개혁 때 정부가 매수한 토지의 보상을 위해 지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

6.25 전란의 와중에 피란수도 부산에서 발행된
오분리건국국채증서*,
1960년대 증권파동을 보여주는
대한증권거래소 출자증권과 증권금융 주식은,

* 6.25사변 등으로 발생한 정부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발행된 국채로,
이자율이 연 5%(五分)이었기 때문에 오분리 건국국채로 불림

기억 저편으로 멀어진 우리 자본시장 발전 초기의
역사를 되살려줍니다.

지난 9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종이증권은 이제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종이증권의 역할이 끝났다고
그 의미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종이증권에 담겨있는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사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② 둘째, 증권박물관은 자본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증권의 역사는
금융교육의 훌륭한 소재입니다.

증권박물관은
관람객들이 과거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산 증권박물관은 방대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관련 콘텐츠와
체험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박물관이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자리 잡았다는 것도 의미가 큼니다.

금융 관련 박물관들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부산·경남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부산에 개관하여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화폐전시관, 자본시장박물관과 함께
문현금융단지가 경제·금융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마지막으로, 부산 증권박물관이
“부산 금융중심지 도약의 주춧돌”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중심지 정책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달성해야 할 중요 과제이며,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우리 금융의 미래입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며,

BIFC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등

금융중심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진정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멍니다.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본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 증권박물관 개관은

금융중심지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증권박물관이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금융중심지 부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나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Ⅲ. 마무리 말씀

박물관의 영어명칭인 뮤지엄(museum)은
고대 그리스의 무세이온(museion),
즉 예술과 학문의 여신인
“무사이(mousai, 영어로 muses)의 집”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무세이온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예술품을 봉헌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을 펼치고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현대의 박물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하고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부산 증권박물관도
금용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부산 증권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